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5일 목요일 음 9월 26일 (3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70%	제 주	60%
70%	성 산	60%
70%	고 산	60%
70%	서귀포	6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13/19℃
모레	맑음	9/16℃

흐리고 비

제주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18℃, 낮 최고기온은 21~22℃로 예상된다.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 유의해야겠다.

	해뜸 06:56 해짐 17:39		달뜸 02:46 달짐 15:14
물때	만조 08:12 20:21		간조 02:07 14:14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미 민주당, 중간선거서 상원 다수당 탈환

공화당 텃밭도… 의회 권력 재편

미국 중간선거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경합지를 휩쓸며 다수당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3일 자정(미 동부시간) 텍사스주는 69.3% 개표율에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58.8%)가 공화당 켄 팩스턴(39.6%)을 앞섰다. 텍사스는 1988년 이후 민주당 상원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캔자스주도 민주당 애덤 해밀턴(51.5%)이 공화당 로저 마샬 의원(45.5%)을 앞서며 1932년 이후 첫 민주당 상원의원 탄생 가능성을 높였다.

오하이오에서는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후보(48.7%)가 공화당 존 허스테드 의원(46.4%)을, 아이오와에서는 민주당 조쉬 투렉 후보(50.7%)가 공화당 애슐리 힌슨 후보(46.2%)를



제임스 탈라리코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연합뉴스

앞섰다. 메인주에서도 민주당 트로이 잭슨 후보의 승리가 예측됐고 공화당 수전 콜린스 의원은 패배를 인정했다.

민주당은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공화당 현역 지역 7곳을 뒤집어 53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시간은 민주당 압둘 엘사예드(49.5%)와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48.5%)가 초접전이다. 알래스카는 투표가 끝나지 않았으며 네브래스카도 혼전이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로컬의 재정의와 제주 정책의 새로운 지평



문 만 석
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법학박사

로컬을 외치는 시대다.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딩 등 지역을 내세운 사업과 정책이 범람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의 이름을 붙인 상품과 관광 콘텐츠는 늘었지만, 정작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와 삶의 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로컬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지역을 하나의 공간이나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로컬은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다. 고유한 삶의 방식이 작동하고, 관계가 밀도 있게 생성되며, 새로운 가치가 솟아나는 생태계이다. 로컬은 '사는 곳'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삶의 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제주 정책에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관광객 유치 중심에서 관계인구 확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관광객 숫자의 증가가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주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가이다. 제주를 반복해서 찾는 사람, 마을 활동과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사람 등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다. 이들이 지역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공동체 활동, 사회적 경제를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정책에서 사람과 관계를 만드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닫힌 공동체에서 열린 관계망으로 변화해야 한다. 제주의 마을 공동체와 권당 문화는 오랜 세월 지역을 지켜 온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강한 내부 결속이 때로는 외부 참여자를 배제하는 경계로 작동하기도 한다. 원주민과 이주민, 청년과 고령층, 정주민과 체류자가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나누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을회와 리사무소도 기존 주민 중심의 조직을 넘어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 빈집 활용, 생활 돌봄, 마을 자원 관리 등 주민의 일상과 맞닿은 문제부터 함께 해결하는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경쟁력은 열린 관계 위에서 굳건해진다.

셋째, 지역 개발과 외부투자가 '지역 내 가치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이익이 지역 내에 축적되고, 사회적 경제나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재투자되는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로컬의 경쟁력은 자본의 규모가 아니라, 지역 스스로 가치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자립적 구조에 달려 있다.

로컬을 새롭게 정의한다는 것은 정책의 이름이나 사업의 유형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과 정책의 출발점을 바꾸는 일이다. 지역을 살린다는 것은 지역에 무엇을 더 가져다 놓는 일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일이다. 로컬의 경쟁력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만들어 내는 데 있다. 제주가 지향해야 할 미래도 여기에 있다. 지역을 개발하는 시대에서 지역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혁신하는 시대로, 이제 로컬 정책의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열린마당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에 대한 함축적 의미



김 상 현
제주시연동통장협의회장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수도권 중심의 압축 성장을 해 왔다.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 등 국토의 불균형 발전 문제가 초래됐다. 이에 중앙정부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당시 제주에는 공무원연금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 이전됐다. 아쉬운 결과다. 중앙정부는 11월 중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에 발맞춰 온 도민이 힘을 모아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을 응원해야 한다.

특히 말산업 1위인 제주는 렛츠런파크를 기반으로 한국마사회를 유치하면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세수 확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기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의 성장 거점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관리 운영, 비즈니스 지원, 주민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전 기관이 지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도민이 체감하는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노력도 필요하다.

제주 산업 전반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에 온 도민의 역량이 모이기를 기대한다.

청년농업인 정착, 함께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



이 봉 실
제주동부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장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기까지는 여러 고비가 있다. 재배기술을 익히는 일뿐 아니라 농지를 마련하고 판로를 찾으며 지역의 농업인과 관계를 맺는 일도 필요하다. 영농을 시작한 뒤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때마다 혼자 답을 찾아야 한다면 농업을 이어가는 일은 더욱 버겁다.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기술을 배우는 기회와 함께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료와 경험을 나누고, 지역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필요하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고 그 결과와 어려움을 다시 나누는 과정은 배움을 실제 영농에 활용하는 힘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이 함께 배우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이들의 아이디어가 지역 현장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스스로 공부하는 모임 '청년농업인 스터디그룹'도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올해 이어지고 있다. 지역축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했으며, 활용 가능한 농업 체험 교구도 개발했다. 청년농업인이 배움의 참여자를 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농업을 알리는 주체로 성장한 사례다.

청년농업인의 정착은 개인의 노력과 지역의 관심·지원이 함께할 때 힘을 얻는다. 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교육·교류를 연결하여 지역농업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청년농업인이 지역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일이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자.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제주소리샘 원장 송시봉

CIC M-ITC ITC ITE
1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2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및 A/S를 책임집니다.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SORISEM 소리샘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753-5347
오라파출소 터미널 신제주 광양 한국병원 소리샘 보청기

고리 파이프상사

◆ HI-3P상·하수도관(고리) ◆ PE관 상·하수도관(미래화학)
◆ 제수밸브등 밸브류일체(신진전공)
◆ 이탈방지부속 하수도 맨홀등(대광주철)
◆ 각종 친환경 상·하수도 부속일체 도·소매 (주)YDI
번영로 고리 파이프상사 SK주유소 안전LPG 화북 거로사거리 사라봉

대표 이 창 빈



고리파이프상사 제주시 번영로 116 Tel. (064)721-8400 Fax. (064)721-8401 HP. 010-3696-4114